

卒業資格과 學位管理

申 鐵 淳

(全北大 教育學科 教授)

I. 머리말

근래에 우리 나라의 大學院教育은 괄목할 만한 量的 成長을 보여 주고 있다. 1970년 全國의 大學(校)에 설치된 大學院의 수가 64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1984년 현재 170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大學院數의 증가 현상만 보아도 그동안 우리 나라 대학원교육이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해 왔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원교육의 양적 확충이 불가피하였던 것은 그동안 大學人口의急增에 따라 부족한 大學敎員을 養成할 필요가 있었고, 社會發展과 함께 각 분야에 있어서 고급 專門人力에 대한 需要가 더욱 커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교육의 質的 向上 문제는 양적 성장에 수반되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課題로 남는다. 대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投入, 敎育 및 輩出'의 3단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자에게 주어진 문제는 단지 輩出에 대한 質的 統制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학원교육의 최종단계에 있어서 졸업생들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綜合試驗, 語學試驗, 論文指導와 審査, 學位授與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나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이고 피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20개의 綜合大學校 要覽을 참고하였으며, 大學敎育協議會의 1982년도 「大學院評價報告書」가 다소의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둔다.

II. 綜合試驗

綜合試驗은 學點取得, 外國語試驗 및 論文提出과 함께 學位課程의 必須要件의 하나이다. 종합시험은 말 그대로 일정한 學位를 목적으로 하여 履修한 專攻과 副專攻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評價하는 시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종합시험으로 통용되지만 外國의 경우 博士課程에 대하여는 豫備試驗(preliminary examination) 또는 資格試驗(qualifying examination)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시험은 학위의 後補者를 결정하기 전에 資格을 판단하는 豫備的 試驗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종합시험은 이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논문작성을 포함하는 학위취득에 요구되는 包括的 能力을 평가함으로써 學位의 質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합시험의 성격에 미추어 현금 우

러 나라의 대학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시험의 問題點은 어디에 있으며 그 改善方向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러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학원에 따라 종합시험의 內容이나 施行方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히 일반적인 사항에 국한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그 문제의 하나는 종합시험이 '綜合性'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종합시험의 실태를 보면 대체로 專攻科目(대학에 따라서는 부건공도 포함) 중에서 碩士學位의 경우에는 2과목 내지 3과목, 博士學位의 경우에는 3과목 내지 5과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된 몇 과목에 대한 시험으로는 綜合的이고 包括的인 評價를 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학원의 最低 取得學點은 석사학위 24학점, 박사학위 36학점으로 이를 이수과목으로 따지면 각각 3學點單位 8과목과 12과목에 해당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종합시험에서 부과하는 과목의 수는 대략 전체 이수과목의 1/3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수치상으로 보아도 우리 나라 대학원에서 시행되는 종합시험은 대체로 보아 학위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學問的 資質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시험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적 자질을 보다 폭 넓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專攻別 또는 개개 學生別로 試驗委員會를 構成하여 그 위원회의 주관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학생이 이수한 과정을 몇 개의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에 알맞은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한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폭 넓은 범위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보다 포괄적인 종합시험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우리 나라 大學院 制度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美國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개 碩士學位의 경우에 3~5명, 博士學位의 경우 5~7명의 관계교수를 임명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筆記 및 口頭試驗의 종합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現行 綜合試驗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거의 모든 대학원이 筆記試驗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필기시험만으로도 종합시험에서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본래 필기시험은 극히 制限된 問題와 領域밖에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종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함께 구두시험을 병행할 때 더욱 깊이 있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리고 개개 학생의 關心分野를 집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구두시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博士學位의 경우에는 口頭試驗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Ⅲ. 外國語 試驗

外國語 能力은 學術研究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專門分野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資質의 하나임을 세삼 말할 필요가 없다. 외국어로 된 專攻書籍이나 學術誌를 읽지 않고는 새로운 학문에 접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학술, 문화, 과학 및 기술의 교류가 빈번한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외국어의 중요성이 날로 상승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어찌면 선진국의 경우는 외국어가 教養의 의미에서 필요하고 혹은 特殊 外國文化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自國語가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고 학문의 발달이 뒤진 나라에서의 외국어는 필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는 卒業資格의 要件으로서 외국어 시험을 부과하고 있다. 碩士學位 과정에서는 대부분 英語 1種을 시험과목으로 정하고 있고, 대학원에 따라서는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도 시험과목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어떤 대학원에서는 몇 學科에 대하여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 하나를 더 택하도록 하여 2種의 외국어 시험을 부과하고 있다. 博士課程의 경우에는 英語를 포함한 2種의 외국어에 대하여 시험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선 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외국어 시험과목에 대하여 살펴볼 때 科目選擇의 범위가 다소 제한되어 있지 않나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는 석사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공히 거의 必須試驗科目으로 되어 있고,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어 등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專攻 또는 개인의 領域에 따라서는 試驗科目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보다 더 필요한 외국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選擇의 範圍를 넓혀줄 것이 요구된다.

또 하나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博士學位 과정의 경우 반드시 누구에게나 2種의 외국어에 대하여 시험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냐는 점이다. 學問의 性格에 따라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1種의 외국어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다. 필요에 입각하지 않고 一律적으로 2種의 외국어 시험을 필수화시키고 있는 것은 權威主義의 思考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專攻研究에 쏟을 시간과 정력을 외국어 습득에 빼앗길 가능성이 많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의 時期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 대학원에 따라 차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원에서 전과정을 마쳤거나 또는 거의 마친 학생에게만 외국어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能力만 갖추고 있다면 어느 때든 빠른 시기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入學試驗으로서의 외국어 시험과 卒業資格試驗으로서의 외국어 시험은 어떤 關係가 있으며 그 水準의 차이는 어떤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입학시험에서 외국어 능력을 충분히 評價할 수 있고 基準만 알맞게 설정된다면 또 한번의 똑같은 외국어 시험을 구태여 부과할 필요가 있을까? 번거로움을 피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둘 중의 하나는 廢止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입학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부과하지 않는 대학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아니다.

IV. 論文指導와 審査

대학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는 學問研究을 獨自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이러한 目的의 實現은 論文作成의 經驗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문제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힘 그리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知識을 응용할 수 있는 機會를 논문작성 과정에서 가지게 된다. 논문작성이야말로 대학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學習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論文의 質은 흔히 大學院教育의 質을 재는 尺度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며 그러기 때문에 논문지도와 심사는 대학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논문지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教授 1인당 과다한 數의 논문지도를 맡도록 해서는 안 된다. 1982學年度 大學院運營評價報告書(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뿐만 아니라 논문지도에 있어서도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도논문이 3편 이상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수가 종종 5~6명의 논문지도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논문지도의 충분한 能力을 가진 교수로 하여금 논문지도를 맡도록 하여야 한다. 교수의 職級이나 學位와 같은 形式的인 면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論文의 性格에 비추어 알맞은 교수로 지도교수로 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한 교수라고 해서 모든 논문을 다 지도할 수 있는 能力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論文作成者의 專攻 및 論文內容과 指導教授의 전공과는 일치가 되어야 하며 명목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논문지도의 기간은 충분해야 한다. 많은 大學院에서 석사학위 논문지도는 6個月 이상, 박사학위 논문지도는 1年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보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문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教授의 論文指導에 대한 誠意와 態度가 중요하다. 논문은 結果보다 오히려 過程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主題의 選定, 研究方法, 資料處理 및 報告書作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科學的인 方法과 節次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解決하는 能力培養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學科에 대한 지도는 철저히 제도 논문지도에는 소홀히 하는 교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의 指導過程을 거쳐 작성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대학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종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論文審査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公正性和 嚴正성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원마다 論文讀會, 公開發表, 口頭試驗 등과 같은 많은 制度的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審査委員의 嚴正과 精實을 개재시키지 않는 그들의 태도라고 하겠다.

논문심사는 合格과 不合格의 判定뿐만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심세한 지적과 조언을 통하여 배우는 教育的 意味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공격적인 태도보다는 가르쳐 주는 태도, 논문작성자의 방어적 태도보다는 배우는 태도가 더 바람직하며 兩者가 상통할 때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V. 學位授與

學位는 소정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주어지는 學問的 權威의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의 名稱이나 種類는 學問의 性格, 內容 또는 水準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며,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현행 우리 나라의 학위의 명칭과 종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碩士 또는 博士學位의 種別 구분의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어떤 학위 명칭은 多數의 전공을 포함한 넓은 분야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어떤 학위 명칭은 單一專攻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위의 종별 구분을 넓은 분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분된 전공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필자의 견해로는

특히 一般大學院의 경우 학위 명칭이 너무 세분화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여하튼 학위의 종별 구분의 기준은 제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의 학위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一般大學院에서는 研究 또는 教授職에 종사할 사람을 교육하는 반면, 專門大學院에서는 각종 전문직의 實務에 종사할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위의 명칭도 달리해 줌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본래부터 학생들의 目的意識이 달라야 하고 제정되는 프로그램의 강조점이나 학위 수여의 條件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세째, 앞으로 博士學位는 學術的 學位(academic degree)와 專門的 學位(professional degree)로 구분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서로 프로그램의 강조점을 相異하게 하여 전문적 박사학위의 경우 學位論文(dissertation)을 대신해서 現場研究(field study) 報告書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학위논문 작성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직의 실무에 종사할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의 박사과정을 二元化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教授나 高級 研究要員을 양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박사학위 과정은 現場의 專門人力을 양성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학위의 수여조건이나 명칭이 구분됨으로써 과정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대학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원 졸업자들의 자질을 보장하기 위한 綜合試驗, 語學試驗, 論文指導와 審査, 學位授與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形式的 過程으로서가 아니라 本然의 目的에 미추어 운영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주요 개선점을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綜合試驗은 學位 候補者로서의 能力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改善되어야 하며, 筆記試驗과 함께 口頭試驗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外國語 試驗은 전공 또는 개인의 연구 영역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科目選擇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학시험으로서의 외국어 시험과 자격시험으로서의 외국어 시험의 二重의 부담에 대한 再考가 요구된다.

셋째, 論文指導에 있어서 지도교수의 시간적 부담, 지도능력, 지도태도와 성의 등은 논문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論文指導教授의 配定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째, 現行 學位의 名稱 및 種類는 學位의 課程이나 學問의 性格, 內容 그리고 授與條件에 따라서 제정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학위의 특성이 구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위의 명칭이나 종류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제정비할 필요성은 대학원의 多樣化에 따라서 다른 학위과정의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本主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고찰에 지나지 않았으며 보다 구체적인 方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필자로서 꼭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科學的인 調査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방안이나 모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